

있습니다. 교육부가 2013년에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 주요 내용 중 하나가 특기자 전형의 모집규모를 축소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특기자 전형이 공인어학성적, 올림피아드 수상 실적 등 외부 스펙의 반영이 가능한 전형이므로 학교 교육 과정으로 대비가 불가능하며 사교육 유발 요인이 매우 강합니다. 최근 정부가 SW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여러 계획들을 발표한 바 있지만 아직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SW교육은 보편화된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SW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특기자 전형을 허락하고, 선정된 14개 대학 중 9곳이 특기자전형 신설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은 그간 정부가 내세운 대입 간소화 정책을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더군다나 미래부가 SW중심대학이 특기자전형을 신설하도록 허락하고 해당 대학이 2018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는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래부가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결정을 했음에도 방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교육걱정은 본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와 해당 대학에 특기자전형 신설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려 합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 행사명 : 2018학년도 대입 소프트웨어 특기자전형 신설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
- 일 시 : 10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 주요내용

- 2018학년도 SW특기자전형을 신설한 9개 대학 명단과 해당 대학의 운영 방법 등 전형 요소 등 세부사항 공개
- 수험생 부담 및 사교육 유발 등, SW특기자전형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언급하고 교육부와 해당 대학에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임.

2016. 10. 1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문은옥(02-797-4044. 내선 511)
정책2국장 구분창(02-797-4044/내선번호 501)